



잠도 자지 않는 우리의 지킴이 Our sleepless keeper

조지 주커 (George Zucker)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2012년 1월 5일

하루 종일 운전한 끝에, 하루 밤을 묵을 모텔을 찾으며 나는 운전대에서 깜박깜박 졸고 있었다. 갑자기 내 차가 반대편 차선 안으로 치우쳐 들어가고 있는 것에 깜짝 놀라며 깨었다. 언덕 꼭대기를 넘어 맞은 편 차선으로 내려오던 차가 내 옆을 지나기 직전에 나는 아슬아슬하게 원래의 차선으로 돌아왔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보호해주심에 감사 드리며 기도했고, 그 보호를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돌렸다. 나는 후시경(백미러)을 통해 상대방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잠이 든 차와 정면 충돌을 간신히 피했다는 것을 모른 채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여러 해 전의 그 경험이 **하나님**을 우리를 자지 않고 지키는 분으로 이해하도록 나의 깨달음을 깊게 해주었다. **그분**의 축복은 우리가 알거나 받아드리는 것보다 훨씬 많고, 수를 셀 수 있는 것 보다 더 많다.

응답된 기도는 단순히 인간적 탄원의 긍정적인 산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보호를 필요하지 모르는 동안에도, 모든 곳에 있고, 늘 우리를 보호하신다. 성경에서 말씀하듯, “너를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 아니 하시리라.” (시편, 121 장 3 절) **그분**께서는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것을 기다리시지 않는다. 신성의 **마음**이신 **하나님**이 고쳐야 할 것, 알아야 할 것은 아무 것도 없기에, 우리는 **그분**께 하셔야 할 일정표를 만들어드릴 필요도 없다.

크리스천 사이언스를 발견한 메리 베이커 에디는 “내일에 대하여 절대로 청하지 말라: 신성의 **사랑**은 상존하는 도움이라는 것으로 충분하다; 당신이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기다린다면, 당신은 매 순간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가지게 될 것이다” (*Miscellaneous Writings 1883-1896*, 307 쪽)라고 썼다.

우리는 치유할 문제에 대한 기도를 시작하고서 그 문제가 왜 또는 어디에서 왔는지 찾아볼 필요가 없다. 우리는 창조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면 된다. **그분**께서는 문제를 만들지도 않으셨고 위험이 모든 고비에서 얼씬거리도록 만드시지도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 이외의 어떤 것도 진정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할 때 치유가 온다.

에디 여사는 자신의 주저서 “**과학과 건강 부 성서의 열쇠**” 앞 부분에서, “누가 칠판 앞에 서서, 수학의 원리가 문제를 풀기를 기도하겠는가? 법칙은 이미 세워져 있으며, 해답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모든 선함의 신성의 **원리**에게 **그분** 자신의 일을 할 것을 우리가 요청할 것인가?”(3 쪽)라고 물었다.

For this translation in English and other translations in Korean, please see
<http://translations.christianscience.com/translations/list/lang/Korean>

Translation © 2012 The Christian Science Publishing Society

This translation has been performed by Mother Church members in the Field and made available by agreement with The Christian Science Publishing Society. You may reproduce up to 100 print copies of this Article. You may not sell or reprint this Article in another publication without permission of CSPA. You may not post or embed this Article on other websites; instead please link to the Article on the CSPA website.

우리는 천국의 조화를 찾는 불운한 인간들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다. (요한복음 17 장 21 절)

어느 날 저녁 내가 일을 마치고 난 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증명하는 또 다른 일이 있었다. 나는 주차비를 내려 애를 쓰고 있던 어떤 운전자의 차 뒤에 꼼짝 못하게 잡혀 있었다. 주차종업원은 신입 사원을 훈련시키고 있었는데 나는 시간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부아가 나기 시작하였다. 나는 점점 커지는 나의 조급함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주차 종업원이 가치 있는 일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직장 동료가 새로운 일을 배우는 것을 도움으로써,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을 인정함으로써 나는 조급함을 자제할 수 있게 되었고, 얼마 안 가서 나는 그 상황에 대한 새로운 생각으로 활력을 회복하여 퇴근 길에 오르게 되었다.

그 후, 우리 집 근방의 기차 역을 지날 때, 내 아내가 역의 플랫폼의 계단을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기차에서 깜박 졸다가 아침에 자기 차를 주차해 놓았던 기차역을 지나치고 말았던 것이다. 내가 주차장에서 잠깐 지체한 것으로 인해 아내가 역의 계단을 내려오던 마침 그 때에 기차역에 도착하게 되었고, 아내가 자기 자동차가 있는 곳까지 삼 마일이나 걷지 않아도 되게 되었던 것이다. 거창한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하나의 작은 일에 불과하다. 그러나 나에게서는 그것은 심지어 우리가 자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끊임없이 돌보심의 한 예였다.